

무안 '공항도시'·광주 '실리콘밸리'…서남권 메가 경제권 조성

대통령실 주도 '톱다운' 방식 결실... '국가 주도 프로젝트'로 추진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 타결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이 산업과 물류, 교통이 어우러진 서남권 거대 경제권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주도한 '톱다운(Top-down)' 방식이 결실을 맺으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이 '국가 주도 프로젝트'로 추진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17일 6자 협의체의 광주 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는 지난 18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했다.

우선 이번 협상에서 광주와 전남을 배려한 패키지 지원책이 나온 대목은 긍정적이다.

최대 수혜자이자 변화의 중심은 단연 무안군이다.

그동안 군 공항 무안 이전을 '협오 시설 수용'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도면 텁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남도가 약속한 청사진대로라면 무안은 명실상부한 '공항 도시' (Airport City)로 환골탈태하게 된다.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과 맞물려 광주

공항 국내선이 옮겨오면, 무안공항은 연간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서남권 유일의 관문 공항

으로 도약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자 협의체 모두 발언에서 "우리 광주 전남의 서남권 미래 100년의 대도약의 설계도가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대중 공항'으로의 명칭 변경과 '호남지방 항공공항' 신설은 무안공항의 위상을 단숨에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기폭제다.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해공항에 버금가는 행정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고,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이름을 딴 브랜드 효과는 해외 관광객 유치와 물류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 주변은 항공기 정비(MRO) 단지,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국가 농업 AX 플랫폼 등이 들어서며 첨단 산업 기지로 변모한다.

김산 무안군수가 "군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결단 했다"고 밝힌 배경에는 이러한 획기적인 발전성이 담겨 있다.

광주시 역시 도심 확장의 걸림돌이었던 군 공항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도시 구조를 대개조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강기정 시장이 언급한 '광주형 실리콘밸리' 구상도 현실로 다가왔다.

광산구와 서구에 걸친 820만여㎡(248만여평)의

군공항 부지는 광주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노른자

위 땅이다.

이곳에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을 집적화하고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를 건설하면 광주의 경제 지형은 완전히 바뀐다.

특히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뿐만 아니라 그동안 잔류 우려가 있었던 인근의 마륵동 탄약고와 무등산 방공포대 등 관련 군사 시설도 함께 무안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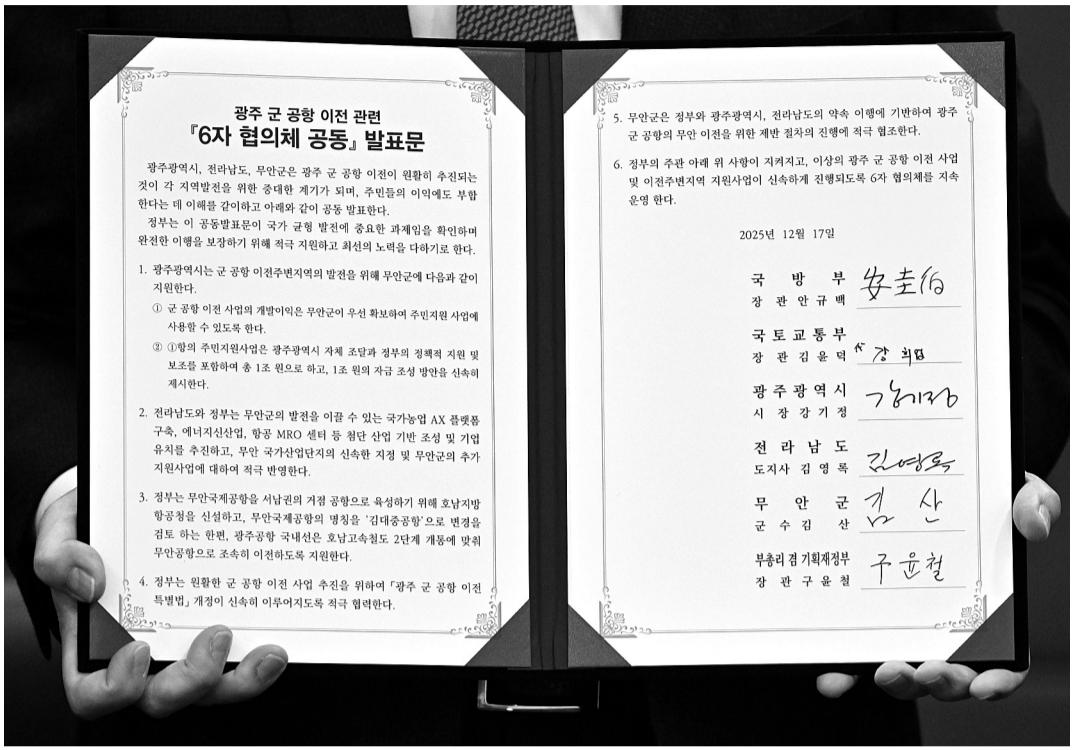
이들 시설은 군공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배후 인프라인 때문이다.

이들 시설이 함께 옮겨가면 고도 제한이나 군사 보호구역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부지 전체를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돼 사업성과 활용도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6자 협의체 모두 발언에서 "무안은 명실상부한 공항 도시가 될 것이고, 군공항이 떠난 240만평의 광주 종전 부지에는 광주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것이 분명하다.

광주 전남은 마침내 서남권 관문공항을 활짝 열 것"이라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의 산업, 관광 문화의 발전을 이끌 것이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길 일이 될 것"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광주의 '연구·기술' '역량과 무안의 '물류·교통' 인프라가 결합하면, 광주·전남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초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내빈들이 서명을 마친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도 우려 섞인 질문이 쏟아졌듯, 합의문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인 '각론'

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타운홀 미팅' 후 급물살... 6개월만에 대타협 결실

2016년 국방부 이전 타당성 적정 통보 후 9년간 답보
지역민들 "1년만에 오랜 숙원 풀어"…속도감 높이 평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관계 기관이 17일 '6자 협의체'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지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지 꼭 18년 만의 성과다. 특히 2018년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시곗바늘이 지난 6월 열린 '광주 타운홀 미팅'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 대타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시절에 광주군 공항 이전 문제는 외면한 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예산 수조원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커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도 안돼 오랜 숙원인 지역 혁안의 매듭을 풀었다는 데 지역민들은 현 정부의 속도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 대타협은 대통령실이 지난 6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주최한 '광주 타운홀 미팅'이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다. 7년 넘게 꽉 막혀 있던 광주군 공항 이전 문제를 더 이상 행정의 영역에만 기둬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론화의장을 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광주시·전남도·무안군과 국방부·국토부·기획부 등을 포함한 6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시했다.

당시 타운홀 미팅에서는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중단 없는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는 전남도와 무안군 등 인근 지자체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는 명분이 됐다.

타운홀 미팅 이후 하반기 기류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자체 간 실무 접촉이 찾아졌고, 국방부 역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결국 지난 6월 형성된 공감대는 불과 6개월 만에 17일 '6자 회담 타결'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애초 군공항 이전 논의의 실질적인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통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2014년 10월 13

일, 광주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공식 제출하며 행정적 절차의 첫발을 뗐다.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군공항을 옮겨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시의 의지는 확고했다.

사업 초기에는 속도전 양상을 보였다. 건의서 제출 두 달 만인 2014년 12월, 국방부와 공군, 광주시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1년여간 14차례의 협의와 자문위원 검토를 거쳐 사업은 구체화됐다.

마침내 2016년 8월 19일,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적정' 통보를 내렸다. 건의서 제출 2년도 안 돼 타당성을 인정받으면서 10년 가까이 끌어온 지역 내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시작된 적정지역 조사 용역이 중단되면서 사업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2017년 하반기 지자체 순회 설명회와 협조 요청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이전 후 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의 반발은 거셌다.

결국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단계는 '예비이전후보지 대상지역 협의'에 멈춰 섰다.

국방부가 작전성 검토를 마치고도 주민 반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7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이 기간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도 통합 이슈 등과 맞물려 갈등과 붕합을 반복했고, 사업은 '희망 고문'이라는 비판 속에 표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
|--|
|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
| 본 회사는 2025년 12월 16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1주당 금액 10,000원의 주식 3,000주를 합침하여 1주의 금액 1,000원 주식 30,000주로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의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에게는 이 공고의 제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1. 구주권 제출기간 : 2025년 12월 18일 ~ 2026년 1월 17일 까지(1개월간) |
| 2. 주식분할(액면분할) 효력 발생일 : 2026년 1월 18일 |
| 2025년 12월 18일 주식회사 한순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95, 상가동 213-2호(신안동, 고운하이플러스) 사내이사 김 영 기 |

| |
|--|
| 상속한정승인공고 |
| • 상속인 : 망·박종재(38120-1XXXXXX) |
|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서암로 416, 102동 908호 (문동동, 대우문흥3차아파트) |
| 피상속인 망·박종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5-4875호로 신청하여 2025년 12월 16일 심판 일정을 확정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재권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재권인증을 하시지 않으시면 위 피상속인은 재산을 이전하는 재산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
| 2025년 12월 18일 • 상속인 : 박영미(710120-2XXXXXX) 광주 북구 설죽로 389번길 70, 105동 202호(삼각동, 삼각동그린타운아파트) • 신고기간 : 2025. 12. 18. ~ 2026. 2. 27. • 재권인고처 : 상속인 박영미의 주소 |

| |
|--|
| 자본감소공고 |
| 본 회사는 2025년 12월 11일 주주 서면특별의서로 자본의 총액 금 300,000,000원을 금 100,000,000원으로 감소시키고자 하고 1주당 금액 금 10,000원의 보통주식 29,990주를 유상소각하여 보통주식 30,000주를 1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개재에 다른 이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25년 12월 18일 주식회사 신망기업 광양시 향민2로 97(황길동) 사내이사 김 영 기 |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

| |
|--|
| 조직변경공고 |
| 본 나주교수생산유동·영농조합법인은 2025년 12월 17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일치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나주교수생산유동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25년 12월 18일 나주교수생산유동·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129-14 대표이사 유 대 선 |
|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3년 光州日報 |
|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문화예술매거진 |

못 받은 돈 환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 | | |
|-----|------|----|
| 선수금 | 출장비용 | 없음 |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